

[언어논리]

[1번] ④

- ① 스킵
- ② (2문단) 진사시와 생원시가 별도였으니, 생원시에 합격 못했다고 들어갈 방법이 없어지는 게 아님.
- ③ (3문단) 조선 들어서는 진사시 폐지됨.
- ④ (4문단) 마지막에 특이한 내용이라고 봐둔 그대로.

[2번] ③

- ① 원본 문서 작성 목적을 다룬 기억이 없음
- ② 스킵
- ③ (2문단) 원본 문서는 효율적 보존이 어렵고, 등록물 모으는 게 편하다고 했음.

[3번] ⑤

- ① (1문단) 마라톤 전투 완승 이유로 팔랑크스 숙달 언급
- ② (2문단) 투구, 흉갑 등 보호 장구 착용
- ③ (4문단) 2행은 앞 동료의 어깨에 올려 적군을 겨냥했으니 수평일 것이고, 4행은 수직으로 세웠다고 언급됨.
- ④ (5문단) 호플론에 대한 설명 그대로임.

[4번] ⑤

- ① ~ ④ 다른 기억이 없거나 너무 디테일한 검증이 필요할 것 같아 스킵
- ⑤ (3문단) 마지막에 본 구체적 사례 그대로임.

[5번] ⑤

- ① 면접교섭권에 그런 조건은 없었음. 그냥 비양육친에게 주어지는 것.
- ② (2문단) 공동양육을 유지할 수는 있음.
- ③ 부부로서 함께 사는데 왜 이혼 테마로 가...?
- ④ 미성년 자녀의 인격권 제한은 개소리.

[6번] ⑤

- ① ② (1문단) 빈곤 문화가 세대에 걸쳐 대물림된다고 했음.
- ③ (2문단) 가족구성도 다양한 분포를 보인다고 직접 언급됨.
- ④ (3문단) 문화적 특징으로 구분 안 된다고 직접 언급됨.

[7번] ②

인터넷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는 ㉠의 내용도 그 자체로 이상하고, 다음 문단에서 극복되었다고 언급되는 '부동성 문제'와도 맥락이 맞지 않음. '부동성'의 의미를 추정해 보면 '움직이지 않는/못하는' 데서 오는 문제일 텐데, ㉠에서 언급한 시간과 비용은 어울리지 않는 요소임. 선지대로 수정하면 맥락이 자연스러움.

[8번] ①

- (가) '사회적 책임 이행'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는데 사회적 기여까지 이어지지 못한다는 건 말도 안 됨. 소거법으로 ④, ⑤를 지움.
- (나) 빈칸 앞 사례는 사회적 기여는 되었어도 기업이 단순히 원두를 비싸게 샀을 뿐이므로 맨 처음 봤던 '사회적 책임 이행'과 다를 게 없어 보임. ③을 지움. 확실하지 못한다면 바로 다음 문단이 "그런데, ...새로 추진한 ...은 공유가치 창출 프로그램이..."로 이어짐을 보고 ③을 지울 수 있음.
- (다) 기업과 지역사회 건설적 관계면 당연히 저 둘이 통합되는 방향일 것.

[9번] ⑤

1문단 논제는 사회 전반의 권위 구조에서 기인하는 사회 곳곳의 문제들을 민주주의 체제에서 대응하는 방법임. 서두에 논제를 던진 경우 마지막에 글쓴이의 주장을 정리하는 미괄식 구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마지막 문단으로 점프. 첫 문장에서 '참여' 개념을 강조하고 있으며 그 주체로 일반 시민을 지목하고 있음. 참여를 통해 사회 전반의 권위 구조를 민주화하자는 마지막 문장까지 보면 ⑤번이 글쓴이의 논지로 가장 적합함.

[10번] ①

- ① (2문단) 웹페이지에서 시선을 끄는 단서가 없을 때 F자형 패턴 읽기가 주로 나타난다고 정리했는데, 내용 그대로임.

[11번] ③

- ㄱ. 전폐용량은 폐활량과 잔기량의 합인데, 폐활량계는 폐나 기도에 남아 있는 공기량(=잔기량)을 측정할 수 없음.
- ㄴ. 전폐용량과 폐활량까지는 포함 관계가 명확하니 비교되지만, 기능적 잔기용량과 흡식용량은 비교가 안 됨. 전자는 호식예비용량 + 잔기량이고 후자는 1회 호흡량 + 흡식예비용량인데, 1회 호흡량과 잔기량 중 어느 쪽이 큰지를 모름.
- ㄷ. 최대한 들이마신 상태는 전폐용량이고, 이는 폐활량에 잔기량까지 합친 것이므로 폐활량보다 큼.

[12번] ④

빈칸 뒷문장에서 "다니아마와 시무라의 추측이 참이라는 것"이 증명되었고, 이로부터 "따라서 B는 거짓"이라는 결론이 나왔음. 추측이 참이라는 걸 넣어서 B가 거짓임을 도출할 수 있는 명제는 ④임. 후건부정으로 B가 거짓임이 도출됨.

[13번] ④

- ① 갑, 을이 참이면 "자율주행차 사용화"와 "운전이 힘들지 않다"가 참임. 정의 말이 참이 되려면 "교통사고는 현저하게 줄어든다"의 진릿값이 추가로 필요함.
- ② 갑, 정이 참이면 확정 명제가 하나도 없고, 을의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된다"를 도출시킬 수 있는 추론도 불가능함.
- ③ 을이 참이라고 하더라도 병이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된다"가 거짓이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양립할 수 있음.
- ④ 무는 "운전이 힘들지 않다" "사람들이 더 이상 운전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거짓이다"를 차례로 제시했고, 이 때문에 마지막 조건문에서 "교통사고는 현저하게 줄어든다"까지도 도출됨. 여기까지가 모두 참이면 병의 첫 문장이 거짓이 됨. 필요조건이 갖춰지지 않았는데도 교통사고가 현저하게 줄어듦.

[14번] ①

결론이 조건문이므로 A에서 시작해 F로 이으면 되는데, 이름이 많아 복잡해질 수 있으니 표를 그린다는가 해서 기록하며 해결함. 결론의 전건인 A O를 넣으면 조건1에서 G X가 나옴. G X를 조건3에 넣어 C X와 E X가 나옴.

이 상태에서 더는 추론이 불가능하므로, 결론의 후건인 F가 도출되는 조건을 찾아 보면 조건4임. D O를 넣어 후건부정해야 하고, D O는 조건2에 B O를 넣어 얻을 수 있음. B O가 필요함.

현재 기록된 게 A O, C X, E X, G X이고, 이것들 중 하나와 B O를 조건문으로 이어 주면 되는데 ①이 바로 그 조건문에 해당함.

[15번] ①

갑을 읽고 나서,

- ㄱ: 태양 중심 체계에서 회전 반경과 회전 주기 간에 양의 상관관계가 성립한다고 했으니 갑은 동의함.
- ㄴ: 갑의 마지막 문장을 거의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니 당연히 갑은 동의함.
- ㄷ: 예측 가능성에 대해서는 갑이 논의한 바가 없음.

ㄷ이 지워지고 선지가 ①, ③만 남아 을에 대해 ㄴ만 검증하면 됨.

ㄴ: 을이 이 평가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음. "코페르니쿠스가 미적인 이유만으로 자신의 이론을 옹호하지는 않았을 것이다."는 그런 이유도 있음을 함축하는 표현임(합정).

[16번] ④

㉠㉡을 먼저 보고, '감도' '반응시간' '선택도'에 대응시킬 수 있는 실험 결과를 선지에서 줄 것이라 예측하고 선지로 이동. 선지에서 언급된 실험 결과와 맞춰볼 수 있는 요소에 대해서만 강화약화 판단. 저것들은 아마 ㉠㉡ 바로 뒷문단에 있을 것임. 지문 앞 부분은 쓸데없는 실험 배경 설명.

ㄱ: 저항값과 저항의 최솟값 간의 관계를 뒷문단에서 찾아 보면 '감도'에 관한 것임. ㉠에서는 감도가 같다고 했는데, 실험 결과에서 노출 전 저항값이 서로 다르고 노출 후 저항의 최솟값은 서로 같으므로 감도 계산식에 넣으면 서로 같을 수 없음. ㉠이 약화됨.

ㄴ: 에탄을 기체만 추가한 공기, 다른 공기로 대체된 공기 등을 뒷문단에서 찾아 보면 '선택도'에 관한 것임. ㉡에서는 MB가 MA에 비해 선택도가 더 크다고 했고, 실험 결과에서 다른 기체가 섞였을 때 MA에서 전기 전도도의 증가량 차이가 발생했음. 선택도 정의 맥락상 이러면 MB의 선택도가 더 클 것임. ㉡의 주장대로니 약화되지 않음.

※ 엄밀히는, 전기 전도도가 2문단에서 저항값으로 치환되고, 이것이 '감도가 많이 변하는 것'으로 치환되어 MA의 선택도가 낮다고 판단 가능.

[17번] ③

㉠㉡을 먼저 보는데, 같은 문단 안에 X, Y, A~C에 관한 정보들이 추가로 보이므로 모두 표로 정리해 둬.

	1	2	3
X	○	○	○
Y	○	○	
A	○	○	
B			○
C		○	

ㄱ: 선지의 사실대로라면 A와 B를 합쳐서 1, 2, 3이 모두 0일 수 없으므로 X가 A와 B로 구성되어 있다는 주장이 약화됨.

ㄴ: 정리된 상태 그대로도 X가 A와 B로 구성된다는 주장에 아무 문제가 없으므로, 추가로 뭘 흡수한다고 해도 약화될 리가 없음.

ㄷ: A와 C의 혼합물이 3까지 흡수한다면 Y가 A와 C로 구성되어 있다는 주장이 약화됨.

[18번] ②

가설을 평가해야 하므로 우선 <가설> 섬으로 이동하고, A만 먼저 처리함. 실험 섬에 그룹이 쪼개진 게 보이므로 선지로 가서 시키는 대로 비교.

ㄱ: A대로라면 그룹 2, 3에서 모두 K를 할 가능성이 커져야 하는데 그룹 1과 차이가 없었으니 예측과 다름.

ㄱ이 지워져 선지가 ②, ④만 남고, B에 대해 ㄷ을 처리함.

ㄷ: B대로라면 그룹 2든 3이든 a의 양 차이를 키우니 K를 할 가능성이 커져야 함. 선지가 그 예측대로니 약화될 리 없음.

[19번] ①

코드 바꾸기는 언어 자체를 아예 바꿔 말하기

코드 뒤섞기는 주축 언어 사이에 다른 언어를 끼워서 같이 쓰는데 주축 언어의 규범을 위반하는 경우

주축 언어가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규범·문법 위반이 없는 언어 혼용은 코드 바꾸기로 간주 (마지막 문단)

(가): 한국어가 주축 언어이므로 사이에 I am happy를 끼워넣은 것은 주축 언어의 규범을 위반하는 것임.

(나): 마지막 문단의 설명을 이해하고 나면 결론이 나 있음. 규범·문법 위반이 없으므로 코드 바꾸기로 봄.

[20번] ②

① (3문단의 정착된 차용어 설명) '피아노'의 사용이 코드 뒤섞기가 아니라면 이것을 외국어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뜻임.

② (마지막 문단) 주축 언어 확정이 안 되더라도 어느 한 언어의 규범이나 문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코드 뒤섞기가 될 수 있음.

[21번] ②

① (2문단) 서울 인구 증가는 유랑하는 농민들이 생업을 찾아 모여들었기 때문. 선지의 이유는 전혀 언급된 바 없음.

② (3문단) 문단에 언급된 예시 그대로 쓰인 선지임.

[22번] ⑤

① 동경계회는 나이가 같은 이들의 모임인데 독서당이라는 관청의 개회가 그렇다고...는 보기 어렵지?

② 다뤄진 기억이 없어 스킵

③ (2문단) 그림은 직업 화가에게 의뢰한다고 했음.

④ (1문단) 동향계회에 속한 관료는 일생 동안 모임에 참여한다고 했음.

⑤ (3문단) 때로는 좌목에 일부 참석자의 부친의 관직, 본관, 자호를 기록 하기도 했으니 비참석자의 것이 기록된 경우에 해당함.

[23번] ④

① 표시 여부의 변화를 다룬 기억이 없어 스킵

② (2문단) 빼기문자 도입 시기가 기원전 3250년으로 선지와 맞지 않음.

③ (2문단) 빼기문자 도입 이후에 실로 연결한 꾸러미 사용이 언급됨.

④ (3문단) 원금 25단위와 이자 3단위를 합친 28개의 토큰을 용기에 넣었으니 선지와 같이 추론됨.

[24번] ⑤

① 인구가 증가했다는 얘기도 없었고 가축도 부족하다고 했음.

② (3문단) 저지대에서의 식량 생산량은 매우 적었음.

③ 선지 자체로 말이 안 됨. 이렇게 고립된 환경이라면 면역 발달이 어려워 외부에서 유입되는 유행병으로부터 안전할 수가 없음. 2문단에서도 설명한 내용임.

④ 뉴기니 발전 못했다는 얘기만 주구장창 한 글이었는데... 1문단에선 아예 국가 조직 못했다고 했음.

[25번] ②

① (1문단) 탈식민지 국가들이 물 공급 민영화를 국가정책으로 추진했음.

② (3문단) 마지막에 제시된 예시 그대로임.

[26번] ④

빈칸 문단에서 학제를 초월한다는 언급과 함께 학제 무용화에 대한 우려를 반박하고 있으므로, 이 문맥에 어울리는 선지는 ④뿐임.

[27번] ①

(가): 빈칸 앞 문장과 함께 선지를 보면 ①, ②의 문장이 딱 들어맞음. 그림과 시를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대중은 영화에 비해 훨씬 적을 테니. 빈칸 뒷문장까지 보면 더욱 확실해짐.

(나): 빈칸 뒷문장을 보면 남은 선지 중 ①만이 자연스러운 문맥을 형성할 수 있음. ②에 있는 문장은 아예 뜬소리.

[28번] ③

※ 평균비용, 한계비용 개념은 피셋 수험생에게는 권장될 만한 배경지식임. 경제학이 있는 직렬이라면 당연한 배경지식.

(가) 경쟁 이전 '모든 시설투자비'를 포함해 계산했으니 맥락상 평균비용이 들어가는 게 옳음.

(나) 이번에는 시설투자비를 제외하고 경쟁 시작 시점에 투입된 비용을 언급하고 있으니 맥락상 한계비용이 들어가는 게 옳음.

(다) 생산비용보다 높은 가격에 빵을 판매했음을 입증한다고 하니 적자가 줄고 있었어야 함.

[29번] ⑤

- ① 인간이 사냥에 있어 '가장 효율적인' 동물이라는 말은 없었음.
- ② 그런 도구가 개발되기 전에 어떻게 사냥할 수 있었는지 설명하는 글인데?
- ③ 일시적 탈수 현상을 견디는 것과 운동 속도 간의 관계를 다룬 적 없음.
- ④ (3문단) 즉시 보충하지 않아도 돼서 탈수 현상을 견딜 수 있다고 설명함.

[30번] ③

㉠을 보고 다음 문단 첫 문장까지 살펴봤을 때 이익조정 유형이 둘로 나뉘어 있고 선지에서도 구분을 요구하니 발췌로 전환.

- ㄱ. '생산량'을 늘렸으므로 실물이익조정의 설명에 들어맞음.
- ㄴ. 광고비를 늘려 (자금에 영향) 이익을 조정했으니 실물이익조정에 해당함.
- ㄷ. 실질 자원 변화는 없고 회계 방식만 바꿨으므로 장부상 이익조정의 설명에 들어맞음.

[31번] ③

1문단의 A를 먼저 읽고 처리

ㄱ: A가 제시한 자연종의 조건이 그대로 갖춰져 있으므로 자연종이라 봄.

ㄷ: 이런 케이스 너무 희귀해서 '노인'에 속하는 개체들이 공유하는 속성에서 크게 벗어나 있으므로(40세) 노인이 아니라고 볼 것임. (A가 생각하는 '노인'이 공유하는 어떤 속성이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므로 판단 불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을 듯)

이제 2~3문단의 B를 읽고 처리

- ㄴ: B는 자연종이 되려면 선명한 구분 기준이 필요하다고 했으니, 어떤 것이 자연종이라면 그 기준이 있을 것임.
- ㄷ: B는 대한민국에서 노인이 65세 이상이라는 속성을 공유한다고 했으니 40세인 ㄷ의 한국인은 노인이 아니라고 볼 것임.

[32번] ①

A를 먼저 읽고 처리

ㄱ: 첫째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는데 정당화된 사례이므로 약화함.

ㄷ: 둘째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으므로 강화할 수가 없음. 둘째 조건에 관해 모호하다고 보더라도, 이 사례가 '강화'를 할 수는 없음.

B에 대해 ㄴ만 처리

ㄴ: 셋째 조건이 만족되지 않았으므로 정당화되지 않는 게 맞음. 약화할 수 없음.

[33번] ③

변수 · 속성 표를 다음과 같이 세팅하고 조건에 따라 필기해나감.

	1	2	3	4	5
노					
구					
5					
1↑					

조건1: '노'에 ○, 합계조건 2 필기

조건2: 1번과 공통이 없으므로 '노'에 X, 불량품이므로 합계조건 1 필기

조건3: 2번과의 공통으로는 아직 할 게 없으므로 양품 합계조건 2만 필기

조건4: '구'에 ○를 필기하고, 3번과 공통이 없으므로 3번의 '구'가 X가 됨. 3번은 합계조건에 따라 나머지 '노', '5'가 모두 0가 됨. 3번과 공통이 없으므로 4번의 나머지 두 칸은 모두 X가 됨. 3번과 2번의 공통이 있어야 하므로 2번의 '5'가 ○가 되고, 2번의 합계조건에 따라 '구'는 X가 됨. 2번은 1번과 공통이 없으므로 1번은 '구'가 0, '5'가 X임.

조건5: '5'에 X, 4번과 공통이 있으므로 '구'에 ○ 필기.

조건6: 4번이 ○ 1개라 불량품이므로 5번이 양품이어야 함. 5번의 '노' ○

	1	2	3	4	5
노	○	X	○	X	○
구	○	X	X	○	○
5	X	○	○	X	X
1↑	2	1	2		

표가 위와 같이 완성되고, ③이 거짓임.

[34번] ⑤

함의를 함축이라고 바꿔 생각하면 이해가 쉬워짐(밤도리 언어논리 이론의 논리 · 퀴즈 #05편을 잘 공부했다면, "P가 Q를 함축한다" = "Q가 P를 포함한다"로 기억하고 있을 것임).

ㄱ. 조건2에서 T가 S를 포함하고, 조건1에서 S는 P를 포함하므로 T가 P를 포함하는 관계가 완성됨.

ㄴ. 조건4는 T가 Q를 함축하지 않는다는 뜻임(줄글 부분 '함의' 정의 참조).

ㄷ. S가 Q를 함축하면 Q의 내포가 S의 내포의 부분집합임. 그런데 조건3은 R의 내포가 S의 내포의 부분집합이 아니라는 뜻임. 그렇다면 Q와 R이 서로를 함의하는 관계는 성립할 수 없게 됨.

[35번] ②

갑을 먼저 읽고 처리

ㄱ: 갑은 유성생식일 때 환경 변화에 마주했을 때 생존에 유리하다고 했고 선지는 그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사례임. 약화할 리 없음.

ㄱ이 지워져 ②, ④만 남았으므로 을에 대해 ㄴ만 처리

ㄴ: 을은 무성생식일 때 생존 경쟁이 치열해진다고 했고 선지는 그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사례임. 약화할 리 없음.

[36번] ④

<실험 결과>를 먼저 보면 α , β , γ 끼리의 대소 관계가 나열되어 있으므로 이를 먼저 표로 정리함. 밴드의 피크가 무슨 뜻인지는 일단 신경쓰지 않음. 선지에서 묻은 것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대소 관계에 비춰 발췌독함.

발췌독 과정에서 1문단보다 2문단을 우선시해야 함.

- ㄱ. G를 D로 나눈 값이 클수록 결정성이 큼. α 는 β 와 D가 같고 G는 더 크므로 α 의 결정성이 더 큼. β 는 $D < G$ 이고 γ 는 $D = G$ 이므로 이쪽에서는 β 의 결정성이 더 큼.
- ㄴ. 샘플에 SW - CNT나 DW - CNT가 존재할 때 그리고 오직 그때에만 파수 300 cm^{-1} 이하에서 피크가 나타난다는 정보가 있음. 그러나 β 가 SW나 DW 중 '적어도 하나'는 갖고 있겠다는 추론이 가능할 뿐, 2종 이상을 가졌는지는 알 수 없음.

[37번] ㉓

실험 결과가 친절하게 표로 정리되어 있으므로 먼저 보지 않고 선지를 확인. "그렐린이 AMPK를 인산화할 때 필요한 것"에 관해서만 먼저 실험 설계와 결과를 분석하기로 함.

실험 1에서 그렐린이 AMPK를 인산화하는지 확인하는 실험을 했고, 그게 AMPK 인산화 여부 표에 정리되어 있음. 그런데 M, MX, MY가 뭔지 모르니 이걸 확인하러 <실험> 섬 위로 이동. M는 정상, MX와 MY는 각각 X, Y를 제거한 것이므로 헷갈리지 않게 X와 Y가 제거되었다고 표시해 둠.

X가 제거된 쥐는 정상 쥐와 같이 S1(그렐린 포함)에 의해 인산화되었는데, Y가 제거된 쥐는 그렇지 않으므로 Y가 필요하다고 추론 가능함. 선지를 소거하고, 인산화된 AMPK가 ROS 생성을 저해하는 데 X와 Y 중 무엇이 필요한지 확인하러 실험 2를 봄.

그걸 확인하려면 '인산화된 AMPK가 있는 상태에서, X 혹은 Y의 존재 여부에 따른 ROS 생성 저해 여부 차이'를 관찰해야 함. 따라서, ROS 생성을 저해하는 P 억제제가 포함된 S2를 주입한 실험군은 비교 대상에서 제외함. AMPK 인산화 여부 표에서 이 비교가 가능한 대상은 S1을 주입한 M과 MX 뿐임(짚바가 있다면 여기까지만 보고 ㉓ 선택 가능).

S1을 주입한 MX는 먹이를 섭취하지 않았고 M은 섭취(ROS 생성 저해)했으므로 X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옴.

[38번] ㉓

가설 A부터 보고 처리(<가설> 위쪽은 배경 설명이므로 전혀 읽지 않음), 선지 구조가 전부 비슷하므로 실험에서 가설의 예측에 맞는 비교 결과를 미리 만들어놓기로 함. 초식 동물이 없는 초본 생태계에서 비육하지 않은 경우와 비육한 경우를 비교하려면 모형 1과 3을 비교해야 하고, A의 예측대로라면 종 다양성이 $1 < 3$ 이어야 함. ㉓이 이 예측을 벗어났으므로 약화됨.

[39번] ㉑

㉑ A는 행위가 '이유 - 반응적'이라고 정의되는 기준을 이야기했을 뿐 모든 행위가 반드시 이유 - 반응적이라고 한 적이 없음.

[40번] ㉒

- ㄱ. (39번에서 생각했듯이) A는 모든 행위가 이유 - 반응적이라고 하지 않음.
- ㄴ. B는 믿음은 이유의 종류가 인식적 이유에 국한된다고 했으므로, 도덕적 이유에만 반응해서 믿음이 형성된 사례는 그것과 상충함. 강화할 리 없음.